

서울숲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근충식물원 식물 담당 매니저 이보윤 인터뷰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더 즐거워요!

[봉사자 기고] 일상에 행복을 주는 선물 같은 '우리 동네 가드닝:화요일엔 식물원'

서울숲 동물농장 올챙이와 개구리, 그 사이

서울숲 소식

[셀프가드닝] 화분 분갈이,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세요!

서울숲은 가을꽃 준비 중





녹지 2구역팀 식물원 담당 이보운 매니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더 즐거워요!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곤충식물원을 운영하고, 식물원 내 온대, 열대 식물, 관엽류 등의 식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사 3년 차 매니저 이보운입니다.

서울숲 곤충식물원은 어떤 곳인가?

서울숲 곤충식물원은 공원이 조성되기 전 뚝섬 정수장이 있던 자리에 정수장 시설물의 골조를 살려서 2005년에 지은 온실이다. 곤충식물원의 식물은 크게 다육이랑 선인장, 온대·열대 초화류나 관엽식물, 레몬이나 파파야,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실수 등 200여 종의 식물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에서 주로 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관목이 130종 정도였는데, 현재는 141종으로 늘었고, 지피식물같이 좀 낮은 식물은 작년에는 48종이었는데 현재는 78종까지 늘어났다.

식물 종을 늘린 이유가 있나?

곤충식물원은 관람 시설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더 다양한 식물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식물원 폭포 쪽에 다리를 놓으면서 그 주변을 새로 조정하게 되어 식물 종이 많이 늘어났다.

또, 서울숲 곤충식물원에는 식물 외에도 거북이 같은 동물과 어류, 곤충 등도 함께 살고 있다. 1년 내내 비슷한 기온과 기후를 유지하는 공간이라,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서 사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지내는 400평가량의 소규모 온실이라고 짧막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

같은 공원 안에 있어도 일반 녹지대 관리와 식물원 관리는 좀 다를 것 같다.

아무래도 실외의 녹지관리와는 차이가 크다. 야외공간은 범위가 넓고 나무나 풀들이 군락진 곳들도 많아서 한꺼번에 식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곤충식물원은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 생육 말고도 고려할 게 더 많다. **(어떤?)** 예를 들면 전정이나 예초를 할 때도 많이 한 번에 확 자르지 못하고 조금씩, 섬세하게 자주 자른다. 미관을 항상 크게 고려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일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또 온실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애들을 키우고 있고, 식물 종이 완전 다르다는 점도 있다. 야자 등 열대 식물들이 많은데 이 식물이 온·습도만 잘 맞춰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란다. 2005년에 개관하면서 2.5m 되는 애들을 식재를 해냈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 4.5m? 거의 천장에 닿을 듯한 상태다. 아무래도 실내라 큰 장비가 들어올 수 없다 보니 큰 나무의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천장까지 자란 큰 나무는 그만큼 토심(땅의 깊이)도 깊어야 하는데 옛 정수장 시설에 흙을 담아 만든 식물원이다 보니 땅이 깊지 않다. 높이 자란 열대식물 같은 게 키가 크고 과실도 달리고 이런 게 관람 거리가 되어서 좋은데, 작은 온실이다 보니 천정에 닿는 문제, 토양이 충분히 깊지 않아 나무가 쓰러지거나 땅이 뿌리에 들려 올라오는 문제 같은 게 있다. 외부 공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들이다. 나무도 시설도 오래되다 보니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다.



△ 오래된 정수장 시설을 활용해 지어진 서울숲 곤충식물원



△ 2021년 6월 30일 재조성을 마친 수생연못

단순 녹지가 아니라 시설물이라 생기는 복잡함이 있는 것 같다.

맞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5년에 만들어져서 나무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특히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교체해야 하는 부분, 망가진 것, 시간의 때가 묻은 곳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팀, 특히 시설팀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의논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궁금하다.

조경을 전공하긴 했는데, 전에는 주로 원예와 관련된 일을 했다. 특히 원예 수업, 원예 치료사 자격증이 있다. 서울숲에 처음 왔을 때는 곤충식물원의 식물 관리도 물론 하겠지만 주로 곤충식물원만의 프로그램, 원예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진행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 식물원에서 식물관리, 시설관리 관해서 배울 것,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후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식물원과 식물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 일하고 있다.

기대와 달라 실망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곤충식물원은 기본적으로 식물 생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듣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물원은 식물이 전시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자연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인위적인 시설물이다. 곤충식물원, 나비정원, 그리고 비교적 최근 리뉴얼한 수생연못 같은 경우 서울숲에서 몇 안 되는 관람 시설이다. 애초에 보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방문하는 분들께 볼 거리, 느낄 거리, 배울 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건 내가 서울숲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같은 식물이라도 테마를 정해 전시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배울 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해왔다. 코로나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방금 언급한 수생연못 이야기가 궁금하다. 6월 말에 재조성을 마쳤고 현재는 수생식물 전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수생연못은 원래 나비 정원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연못이었다. 거기도 정수장 시설을 살린 거다 보니 완전히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었고,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 완전히 방치된 공간은 아니고 갈대나 부들, 노랑어리연꽃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개구리나 다양한 곤충들, 거북이들도 살고 있었다. 현재의 수생연못으로 재조성하면서 수생 식물 30종가량을 심었는데, 수련 종류를 늘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수선화라든지, 물무궁화, 해수화 같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식물을 선별해서 조성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유해 종으로 분류된 거북이도 살고

있고, 식물을 많이 뜯어 먹는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거북이들이 식물을 먹는 걸 좀 방지해보려고 식물 주변에 철제 밴딩 처리를 했다.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수생연못에 심은 식물 중 바깥 활동도 못하는 식물들이 10종 정도가 되는데, 날이 추워지면 그 식물들은 곤충식물원에 옮겨 관리할 예정이다.

전에도 연못이 없던 건 아닌데 새롭게 수생연못이라는 이름을 붙여 조성한 이유는 뭔가?

첫 번째로는 경관개선을 위한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크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예쁜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공들여 했을 때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봤고, 실제 결과도 예상한 대로인 것 같다. 많이 아름다워졌고, 더운 날씨임에도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 구경하기 위해 머무는 분들이 많아졌다. 두 번째로는 식물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원의 몇 안 되는 관람 시설로서 방문하는 분들께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수생연못도, 곤충식물원, 나비정원도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지만 규모는

매우 작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야기한 대로 보기 드문 식물을 배치하고, 식물별로 특징별로 분류해 안내하고, 비오톱 조성도 했다. 잘 관리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작은 연못이 그 자체로 생태 커리큘럼, 콘텐츠가 되는 거다.

비오톱? 그게 뭐냐?

자연물을 활용해 인공적으로 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해주는 건데, 돌 틈이나 나무 틈 같은 곳에 곤충이나 새들이 알을 낳거나 먹이를 숨기거나 해서 사람 눈에 안 띄는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 수생연못에 서울숲 폐목재 같은 걸 가져다가 비오톱을 만들었다. 나무 사이사이에 물고기가 숨어들어서 새들 먹이가 되는 걸 피한다든지 하고 있다. 물고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거기에 들어온 모양이다. 저번에는 까치들이 와서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어떻게 거기로 건너갔는지 새끼고양이들이 와 있는 것도 보았다. 나한테도 신기한 광경이다. 단순히 예쁜 식물을 넣어 전시 식물을 늘린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건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생태 학습의 좋은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금쟁이, 올챙이와 개구리,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이 개체 수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 모두 일부러 거기에 넣은 게 아니다. 연못을 정리하고 식물을 관리하고 비오톱을 조성했더니 저절로 다른 생물들이 풍성해졌다.



△ 수생 연못에 조성된 비오톱

좋은 생태 학습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물에 사는 식물 전시도 하고 있는 건가? 짧막하게 전시 소개를 부탁한다.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물에 사는 식물전이 운영이 된다. 수생연못은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수생식물은 아무래도 흙에 사는 식물에 비해 다양한 모양이나 형태, 생태가 다르다. 물에 떠서 사는 식물, 물속에 사는 식물, 잎만 바깥에 나오는 식물 등,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재미있는 퀴즈 같은 것도 준비했다. 호기심도 해결하고 관찰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어놓은 전시니까 공원에 오시면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 드린다.

전시 이후 곤충식물원이나 수생연못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짧게는 그냥 일상 관리를 잘하는 것과 식물들 이름을 알려주는 표찰부터 그 식물에 담긴 스토리를 보여주는 다양한 안내 사인물과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식물원 내에 돌담을 쌓고 제주에 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을 전시했는데 여기에 안내판이 없으면 식물원에 왜 그런 곳이 존재하는지, 이게 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된다. 하다못해 식물의 이름, 그 식물이 제주에 살던 자생식물이라는 점이라도 알리면 그 화단을 보는 재미가 달라질 거라고 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본래 식물원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식물원의 태생으로부터 기인한 문제, 예를 들면 얇은 토심 같은? 그런 것과 식물원 규모, 큰 나무들이 더 이상 자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대 식물을 육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로 육묘장을 만들던 식물원 한편을 활용하던 방법을 찾아야 앞으로 생길 다양한 일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사실 서울숲에 있는 관람시설들, 수생연못도 그렇고 나비정원, 곤충식물원도 그렇고, 다 규모가 되게 작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다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걷는 속도로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별로 볼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식물이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이런 연못에서 이런 식물이 살 수 있구나’, ‘이런 식물 종류가 의외로 많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께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인 만큼 더 천천히, 세심하게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나도 시선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에 맞게 식물 관리도 하려고 한다.

일상에 행복을 주는 선물 같은 우리 동네 가드닝: 화요일엔 식물원



봉사자 입장은

서울숲을 산책하던 중 게시판에 '우리동네 가드닝: 화요일엔 식물원'이라는 모집 공고를 보고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우리동네 가드닝-화요일엔 식물원'은 지역주민이 가드너와 함께 서울숲의 식물원을 가꾸며 식물 모니터링과 화단 디자인, 식물원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전부터 꽃과 식물을 좋아하는 나는 가드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었고, '화요일엔 식물원'이라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꽃과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며, 나아가 가드너로서 성장하고 싶었다. 그리고 서울숲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성동구의 자랑인 서울숲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도 일조하고 싶었다.

'화요일엔 식물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후 시작한 첫 활동은 식물원 정문 화단에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잡초들을 뽑고 맥문동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이었다. 두 번째 활동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잡초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리한 맥문동을 줄을 맞춰서 나란히 심는 작업을 하였다. 식물원 정문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여름에 보랏빛 맥문동 꽃 피는 모습이 기대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활동이 끝나고 정리한 식물 중

일부인 원추리와 맥문동을 선물로 받아, 서울숲과 주고받는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식물원 내부의 정원에 있는 식물들의 주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갈을 깔고 경계목에 있는 이끼를 제거하는 것도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점점 내려가서 이끼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식물원의 이런 현상을 관찰하며 관리해주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특히 식물원 2층에 겨울철에도 나비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동계 나비 체험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 화단에 꽃을 식재했던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더운 날씨였지만 깔끔해지고 정리된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초록색 식물들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맑아지고 저절로 힐링이 되었다. 그리고 가드너 선생님 지도하에 자원봉사자들이 협동하여 나중에 꽃 피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꽃식물들을 배치하고 직접 식재도 해 식물원이라는 공간에 생기를 더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꽃 피는 봄과 여름의 푸르른 녹음을 직접 보고,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활동 내용 또한 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점도 좋았다. 6월에는 역량강화교육으로 회원동에 위치한 피크닉 전시회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소감을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드닝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교육이 더 있으면 좋겠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서울숲을 직접 가꾸고 느낄 수 있는 '화요일엔 식물원'은 나에게 일상의 행복을 주는 선물과도 같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다가올 가을과 겨울의 다채로운 활동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 동네 가드닝-화요일엔 식물원'은 지역 주민과 서울숲이 함께 서울숲 곤충식물원의 식물들을 가꾸는 봉사활동입니다. 거리두기 준수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곤충식물원 휴관일에만 운영하며,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면서 스트레스와도 거리를 둘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에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사육사와 함께 알아보는 동물 친구들의 짧은 근황

서울숲 동물농장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경우도 많죠!
개구리의 알은 물 속에서 부화해 올챙이가 되는데, 뒷다리가 쏙~하고 나온 뒤, 앞다리가 쏙~ 나오고, 마지막으로 꼬리가 점점 뭉툭하게 짧아지면서 이윽고 개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갑니다.
서울숲 곤충식물원을 비롯, 서울숲 곳곳에서 개구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육사한마디: "개구리는 **웁츨크야** 땡네다.
힘든 요즘 때 **땡** 수 있게 **잠시** 멈추세요"



[셀프가드닝]

화분 분갈이,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세요!



10. 탕탕 쳐서 흙이 아래로 내려갔다면 빈공간에 다시 흙을 채워주시고 화분 벽쪽 위주로 흙을 꼭꼭 눌러주세요. 중앙부를 누르는 것은 피해주세요. 뿌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난석(혹은 마사토)를 덮어줍니다. 뒷부분에 난석이나 마사토 같은 가벼운 돌을 깔면 물을 줄 때 흙 꺼짐이나 부품, 수분 증발 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12. 이름표를 달거나 피규어를 놓는 등, 나만의 방식으로 식물을 꾸며보면 식물에 애정도 생기고 가드닝이 더 즐거워집니다!

1. 화분 바닥의 물구멍 크기에 맞게 깔망을 깔아줍니다. 깔망은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커다란 깔망을 화분의 구멍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2. 난석이나 마사토를 1cm 정도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배수층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합니다. 난석 또는 마사토 역시 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 상토(흙)를 난석 위에 조금 깔아줍니다. 가져가신 포트(임시화분)도 흙이 가득 차 있지만 화분 크기에 맞게 잘 자랄 수 있게 흙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상토 역시 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냥 밖에 있는 흙을 퍼오면 안되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런 흙에는 벌레들이 있고, 식물을 병들게 하는 균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가져가신 식물을 살살 돌려가며 포트와 분리시켜 줍니다.
5. 화분 벽을 따라 둥글게 자라난 잔뿌리를 손이나 가위로 제거해줍니다. 단, 화분이 가져간 포트에 비해 넉넉한 크기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6. 시든 잎도 적당히 제거해줍니다.
7. 식물체를 화분에 넣어 화분과 식물의 높이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흙표면이 화분보다 2cm가량 아래가 되도록 해주세요. 더 깊다면 아래 상토(흙)를 더 깔아주시고 너무 높으면 아래 깔았던 흙을 제거해주는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해줍니다.
8. 식물을 수직이 되도록 잡은 채로 빈 공간에 흙을 더 채워줍니다.
9. 화분을 바닥에 탕탕 쳐서 빈 공간으로 흙이 가득 차도록 해주고 윗부분도 평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서울숲은 가을꽃, 준비 중! 🌻🌻🌻🌻🌻

가을에 서울숲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그리고 가드닝 프로그램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눌 행복을 위해, 서울숲 육묘장에서 가을꽃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맨드라미, 리나리아, 코스모스 등의 식물 6,000여 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사히 자라난 꽃은 9월부터 서울숲 출입구 주변의 화단, 중앙호수 다리, 나비정원 등지에 심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숲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서울숲 소식지 구독자 설문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식지를 읽은 소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숲 소식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